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7길 14 엘림빌딩 3층
전화 (02)3676-6308 팩스 (02)766-6025
<http://www.pharmacist.or.kr> . E-mail:kpkyp@chol.com

문서번호 건약241209-1
시행일자 2024. 12. 09.
담당 이동근 사무국장 (010-9697-0525)
수신 각 언론사 담당자
제목 [보도자료] 대한약사회 후보자 3인 윤석열 탄핵에 대한 긴급질의서 답변 공개

[보도자료] 대한약사회 후보자 3인 윤석열 탄핵에 대한 긴급질의서 답변 공개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최근 벌어지는 비상계엄령 선포와 점점 내란혐의가 명백해지고 윤석열을 탄핵하고 즉각 체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묻는 긴급질의서를 12월 9일 발송하였습니다.
3. 세 후보 모두 성실한 답변을 주셨으며 긴급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공개합니다. 이 답변을 통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9만여 약사를 대표할 약사회장 선출도리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4년 12월 2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 ▣ 첨부1 :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가 대한약사회 후보자에 보낸 정책질의서
- ▣ 첨부2 : 건약의 정책질의서에 후보자 3인의 답변

제 41대 대한약사회 회장 후보자에 대한 긴급 질의서

2024년 12월 3일 밤늦게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은 비상계엄 선포를 선언하였고, 계엄사령부는 1호 포고령을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내용과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군대를 동원하여 헌법에 보장되어있는 국회 활동을 봉쇄하려고 하였습니다. 국회는 신속하게 계엄 해제를 요구하였고, 비상계엄은 선포 6시간 만에 해제되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은 법에서 명시한 발동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포고령의 내용 또한 위헌적입니다. 계엄전후의 사정을 보았을 때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지며 내란에 해당된다고 다수의 헌법학자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충격을 받고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을 탄핵을 통하여 직무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사안에 대한 판단은 지금 시기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판단하여 대한약사회장 후보에 출마한 입후보자의 의견을 물어보고자 합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을 탄핵하하고 즉각 체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밝혀주시시오.

첨부2: 건약의 정책질의서에 후보자 3인의 답변 (후보자 기호 순으로 정렬)

1. 최광훈 후보

대한약사회장 후보 기호 1번 최광훈입니다.

2024년에 대한민국에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다는 것은 참으로 참담한 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근대사는 민주화의 역사였습니다.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일군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될것입니다.

이미 최광훈후보는 4일 입장문을 내어 국회 대응으로 비상계엄이 해제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전하고, 회원 약사들을 향해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당부한바 있습니다. 이미 경찰과 검찰,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헌법이 정한 바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헌정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에 대해서는 단호한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최광훈 후보의 의견은 단호합니다. 감사합니다.

2. 권영희 후보

비상계엄 선포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

존경하는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원 여러분,
대한약사회장 후보 기호 2번 권영희입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초유의 사태였습니다. 헌법에서 명시한 비상계엄 발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국민과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위협적 포고령은 내란에 해당하는 행위로 규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짓밟는 폭거였습니다.

이번 사태는 국민 건강권과 보건의료 체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위협입니다. 약사회는 단순히 약사 직능을 대표하는 집단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보건의료 전문가 집단으로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수호에 책임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을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포고령을 통해 국민과 보건의료인을 종속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권력의 본질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사명과 헌신을 부정하는 행위이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위반입니다.

국회는 헌법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탄핵해야 합니다. 탄핵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헌정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비상계엄은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고 보건의료 체계를 불안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약사로서, 그리고 대한약사회장 후보로서, 탄핵을 국민 건강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역사적 싸움으로 규정합니다. 약사사회는 국민과 함께 헌법과 법치주의를 수호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법적 심판을 통해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국민과 약사사회의 신뢰를 배신한 행위로, 탄핵은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국민과 함께 헌법과 법치주의를 수호하며, 약사회의 사명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4년 12월 9일
제41대 대한약사회장 후보 권영희

3. 박영달 후보

입 장 문

제41대 대한약사회장 후보 기호3번 박영달은 작금의 현 시국에 대해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우려스럽고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헌법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명백한 친위 쿠데타이며 국가내란입니다
지금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는 단 한순간도 윤석열에게 국군통수권을 포함한 국정을 맡길 수 없습니다
윤석열은 국가 내란의 수괴로서 탄핵은 물론이고 내란의 일당들과 함께 당장 체포구금을 하여야 마땅합니다

제가 이번 선거에 당선이 된다면

제 41대 대한약사회장 당선인 신분으로 타보건의료단체장들과 함께 9만약사를 대표하여 위와 같은 저의 입장을 성명서로 발표하는 것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9일

대한약사회장 후보 박영달 올림

